

“화합 분위기가 치협이 앞장” 정협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 김장관 편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정재규 협회장은 8월 11일 오후 시내 모 음식점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 협회장을 비롯, 김재정 의협 회장, 김광태 병협 회장, 안재규 한의협 회장, 김의숙 간협회장, 한석용 약사회 회장, 서란희 조산사협회 회장 등 주요 보건·의약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만찬을 겸해 화기애애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간혹 은유적인 표현으로 각 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으나, 복지부와 각 단체간 주요정책 건의 등 무거운 주제를 떠나 서로 화합하

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정재규 협회장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 각 단체와 정부 부처가 서로 이해하려는 마인드가 중요한 만큼, 가벼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단체와 이해관계가 적은 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 보건·의약계의 화합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매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짓는 상대 가치 환산지수를 공단이사장과 협상하는 보건·의약인 단체장 모임으로 치과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 등 9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구강보건과·암관리과 통합 철회 복지부 “현행대로 존속·없었던 일로” 치협, 구강보건정책국 확대 개편안 주목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과와 암관리과의 통합 부서를 추진한 복지부 조직 개편안을 철회했다.

정재규 협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했던 암관리과와 구강보건과의 통합부서 추진과 관련 장관과 차관으로부터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8월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구강보건과와 암 관리과는 그대로 존속시키되 복지분야 부서 중 1~2개를 통합하는 것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강보건과 조직개편 파문은 발생 1개월여만에 사실상 일단락 됐다.

이번 파문은 정부 조직개편 바람이 불 때마다 1순위로 구강보건과가 지목되는 현상이 올해에도 재현된 것으로 치협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불안감을 던져준 후유증을 남기게 했다.

그러나 구강보건과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며, 이에 따른 치과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각성을 갖게 해 ‘입에 쓴 보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치협은 이번 구강보건과 통합파문에 오히려 발빠르게 구강보건정책국으로 확대 개편안을 발표, 주목을 끌었다.

확대 개편안에서 치협은 정책국을 ▲구강보건정책과 ▲구강보건사업과 ▲구강보건산업진흥과 등 3개과로 나눠 구강보건인력 면허관리에서 구강진료 장비까지 업무영역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치과가 미래 지향적인 분야인 만큼, 시장개방과 경제자유구역 설립에 대비, 아시아 치과의료 분야 맹주로 도약하기 위한 덴탈허브존 개념을 도입, 치과기자재 시장 활성화 및 치과의료 시장의 확대를 꾀했다.

치협은 현재 현행 구강보건과의 인력 등을 보강, 1단계로 과명칭을 구강보건정책과로 변경하고 2단계로 구강보건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추진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포털사이트 9월 1일부터 오픈

치협은 KDA-IT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인 KDA 홈페이지 초대형 포털사이트 구축 사업을 완료한 가운데 9월 1일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했다.

홈페이지는 ▲클릭גע실기능 ▲KDA 메일 ▲온라인 회의실 ▲사이버 강의 ▲DENTAL MBA ▲홈페이지 빌더기능 등 회원서비

스 부분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치협은 9월 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재규 회장 등 협회 임원, 서울·경기·인천신협 이사장, 치과계 전문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털사이트 오픈식을 개최했다.